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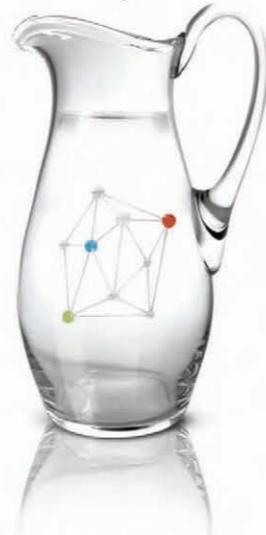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Nice to meet samyang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독자 효소 기술
저칼로리 기능성 당류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筆巖書院 山仰會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33호 목차 —

현대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2
초현관 김동원(전북대학교 총장)	
하서河西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에 대한 관견管見	7
김재수(본회 편집주간)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희의 사천지학事天之學의 구조와 성격	12
김유곤(전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중용, 새로운 하늘, 생태주의의 길	28
백승종(교수)	
필암서원·산양회 소식	30

— 알림 —

1. 방명록에 새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 강연회나 필암서원 춘추향제에 나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는 3만 원이며, 연 회비는 4만 원입니다.

·전화로 신규가입을 신청하실 경우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01-0093-8931-91)로 입회비 3만 원을 입금하시고 김재수(010-2705-6395)에게 전화나 문자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주택, 휴대폰)
- ⑦ 현직 또는 경력

현대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초헌관 김동원(전북대학교 총장)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가운데 하서선생님의 추향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서선생님의 추향제에 초헌관으로 참여하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여러 유림들과 함께 하서선생님의 드높은 덕을 흠모하고 후학들에게 그 의미를 살리는 좋은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필암서원은 전국 9개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큰 기록을 또 하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일이 이루어진 필암서원에 와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추진했던 체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리학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교의 경전을 탐구한 바도 없지만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이런 문제가 전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서원

과 대학이 협력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곳으로, 더 화합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황룡면 맥호리 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전남 사람으로서 타지인 전북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전남 사람이 전북대학교 총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발도 컸습니다. 후보 사이의 치열한 다툼으로 갈등이 첨예화되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갈등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한국 사회가 소득 3만 불 4만 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큰 지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라남북도는 전국에서 소득 최하위 도입니다. 경제사정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더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더 빨리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그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거나 더 많이 배려해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발전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우리대학을 빨리 발전시킬 것인가 생각하면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즉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입니다. 외형에 치우쳐서 내실이 없는 것보다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라는 내실을 기하고 구성원들 간에 따뜻한 동행을 도모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각 조직과 조직,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교수들도 지역과 출신대학과 고등학교에 따라 많은 갈등이 노정되었습니다. 또 학장을 총장이 임명하는 제도였는데 학장도 교수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수채용에 있어서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명분 아래 본부에서 대학총장이 알아서 직접 채용하는 이상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서 찬성을 하지만 본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과 자기 집단에 돌아오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자들을 먼저 임명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나이 지역

동문 출신을 배려해서 부총장을 비롯하여 학장들을 영입했습니다. 우리대학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 가는 방안이 아니라 좀 더 화합하고 협력하는 방안으로 대학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많은 구성원들이 총장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어 갔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공모한 각종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수주했습니다. 또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계에서도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연구소를 유치해서 구성원들로부터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제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갈등이 극심하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한 국가로서 한국은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는 터키라고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갈등이 많은 국가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인 정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마음속이 평온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 힘이 나오고 서로 협력할 마음이 나오는데, 갈등이 가득 차 있는 사회에서는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음습한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조직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개발과 보존의 이익 갈등, 다문화 갈등, 한국 사회가 가야말로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해에 4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채용회장이 지금 재판 중에 있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까요? 아닙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이라는 기업을 자기 대에서 말아먹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을 처분하고, 본사 건물까지도 처분해서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글은 세계 수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워낙 커서 구글 캠퍼스라고 합니다.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는 저서에서 2045년에 싱귤러리티(singularity)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진화하다가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기점, 즉 싱귤러리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뛰어넘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가 정신, 창의력이라고 부릅니

다. 창의적인 문제의식과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호남지역은 낙후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이 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올릴까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력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협력도 나이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를 때 더 잘 만들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대학생들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학생들과 일주일씩 합숙을 시켰습니다. 우리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각 나라 학생들을 고무 섞어 20개의 조를 만들어 일주일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종도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 소통이 되지 않았으나 하루만 지나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변했습니다. 5000원씩 주었더니 하루 종일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다가 보니, 한국의 콩그리쉬가 인도네시아 학생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인도네시아의 이상한 영어가 우리 학생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면 서로 매우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서로서로 손잡고 떨어지기를 아쉬워합

니다. 버스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프로는 8개월 진행됩니다. 8월에 세 나라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8개월 동안 각 조별로 반드시 AI나 인공지능 혹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발표합니다. 한 사람도 무임승차하지 않고 모두 발표하게 합니다. 이를 평가해서 4 등까지 대한민국 전국대회에 보냅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다 참석하는 인터네셔널 세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잘못했는데 점차 우리 학생들이 대상을 휩쓸니다. 미국 영국에서도 참가했는데, 우리학생,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모두 놀라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결국 비결은 우수한 학생들이 마음을 비우고 평정한 상태에서 외국 학생들과 서로 협력해서 노력할 때 더 힘이 나더라는 거죠.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8개월에 언어를 얼마나 극복했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우리대학을 우습게 봤어요.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동남아시아의 다문화가정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장 우수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중요한 플랫폼 사업을 갖고 있는데, 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같

이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을 읍니다. 이제 전남대, 조선대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갈등이 없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되면 월등하게 우수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세계에서 하나도 없는 새로운 시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갈등이 없는 사회를 하루 빨리 이루어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잘 모르지만 성리학에서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믿음, 곧 신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계층과 계층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학을 이끌면서 지역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서로 품어 안고 화합하면서 우리사회를

발전시킬까 고민하겠습니다. 대학이 앞장서서 문을 열고 초등학교와 협력하고, 중고등학교와 협력하고 기회가 온다면 서원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어른들과 전국에서 오신 여러 유림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서학의 중화中和사상

하서학의 유교철학적 가치와 성과는 중화사상의 이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점이다. 한국유학이 철학사상으로서 성명여리의 학문으로 토착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14세기 초이다. 중국의 정주도학이 원대를 거쳐 이색李穡(1328~1396)에 의해 ‘성문심학聖門心學’으로 수용되어 한국 성리학으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천명, 인심도심, 사단칠정 등, 그 철학적 명제도 송명리학宋明理學과는 달리 성명여리性命義理에 집중하는 실천유학의 이론체계를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유학의 정수가 본원유학의 중화사상의 실천에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여, 이른바 공문심법의 정수는 정일집중精一執中에 있다는 의식을 따른 것이다. 하서는 선진유학의 본령은 중화의식에 있고, 이를 계승하여 송유宋儒 주자朱子が 집대성한 신유학의 근본 역시 중화사상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중화실천을 중시하는 한국유학의 연원은 은殷나라 유신遺臣인 기자箕子가 유교문화의 홍범洪範사상을 전래傳來함에서 비롯한다. 홍범구주洪範九疇는 『상서尙書』 「홍범洪範」편에 제시된 국가를 치리治理하는 데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아홉 가지의 대경대법이다. 유가의 이상理想정치를 실현하려는 왕도王道주의는 또한 유학의 중정中正의식의 실천적 성격을 주제로 한 것이다.

그의 학술은 천명도설의 완성 단계나 사칠논변에 학문적인 관철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 서경요 교수 『하서 김인후의 성학聖學 사상연구』,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4집, 107쪽에서 인용함

하서河西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에 대한 관견管見

김재수(본회 편집주간)

하서 도학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하서 천명도天命圖 연구는 1982년 유 정동 교수가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에 관하여’를 발표한 이래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서명사천도』는 하서의 주저라고만 언급될 뿐 단 한편의 논문도 발표된 바 없다. 문헌이 일실되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서명사천도』가 예부터 하서의 주저로 언급되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하서의 도학에 대한 저술이 워낙 적기 때문에 주저로 내세워졌다고 짐작되기도 하지만, ‘서명사천도’라는 제목 자체가 하서의 도학사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는 추론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헌이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 『서명사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서명과 사천을 둘로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천명도를 비롯하여 하서의 도학사상을 담고 있는 시문詩文들을 연결시켜 연구함으로써 하서의 ‘서명사천도’에 담겨있는 사상을 어느 정

도 추론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경요徐桐遙교수도 『하서 김인후의 성학聖學 사상 연구』(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4집)에서 “물론, 주역관상편과 서명사천도 등은 연보에는 도와 설이 세전世傳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의 시편 속에서 개념적인 자료를 모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서연보 別本河西年譜 別本을 보면

- 1549년(40세) 순창에서 천명도를 지었다. 10월에 참봉공 상을 당하였다.
- 1550년(41세)에 장성 맥동으로 돌아왔다.
- 1551년(42세) 6월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 1552년(43세) 효부孝賦를 지었다.
- 1555년 (46세) 선고의 유언에 따라 사당 및 정침을 지었다.
- 1556년 (47세) 화담 서경덕의 ‘독주역시讀周易詩’에 차운했다.
- 1557년(48세)에 선생이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서명西銘을 꼼꼼이 생각하며 천 번을 읽고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를 지었다고 한다. 배우는 지들에게 글로

써서 보이기를 “염계의 도설은 도리가 정미하여 글은 간략하되 뜻은 만족하고, 장재張載의 서명은 규모가 광활하여 뜨지도 않고 새지도 않으니 만약 천자天資가 고명高明하면 먼저 태극에서부터 공력을 써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서명을 이해하고서 태극에 미쳐 가야 한다. 태극은 덕성德性의 근본이요 서명은 학문의 강기綱紀이니 요컨대 어느 한쪽도 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연보의 기록을 통해서 하서가 염계의 태극도설과 장재의 서명 연구에 얼마나 몰두했는가를 알 수 있다. 부친상 모친상을 연거푸 당하여 효부를 짓고, 선고의 유언에 따라 사당祠堂을 먼저 짓고 다음에 정침(제사를 지내는 몸채의 방)을 지어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를 다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당과 몸채를 짓는 대역사를 치루면서도 1549년부터 돌아가시기까지 10년 동안 도학에 대한 연구에 오로지 전념하면서 천명도, 효부, 주역관상편, 서명사천도를 저술하셨던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10년 동안에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맥동 백화정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자신의 도학사상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처럼 귀중한 저술이 1568년 하서집 초간본이 발간되기 이전에 일실되어(맥동본가의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말이 문중에 전해옴) 지금까지 하서 도학 연구의 길을 막고

있으니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은 객관적인 자료나 문헌이 없으면 아예 연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하서의 주 저서인 서명사천도를 연구할 수 있는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서명사천도 연구를 위한 발제를 해보시라”고 김 장수 본회의이사(동양 문헌학회 회장)에게 권유하여 본보 32호에 실은 〈하서 서명사천도 연구를 위한 발제〉라는 귀한 논설을 얻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도 심혈을 기울려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발제를 해주시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실마리를 여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기대가 크다.

앞에서 나는 문헌이 전하지 않는 서명사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서명과 사천을 둘로 나누어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면 서명을 쓴 장재張載 사상과 사천사상을 그 근원에서부터 더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재의 서명에 대해서는 김 장수 이사의 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앞으로 ‘장재 철학의 천인 합일적 인간 이해와 보편 생명연구’를 쓰신 함 현찬교수를 초청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 휴의 사천지학事天之學의 구조와 성격’을 쓰신 전북대학교 김유곤 교수를 초청하여 사천사상에 대한 강연을 듣기로 하였다. 사천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금장태 교수가 다산 ‘실학의 내용: 인륜人倫과 사천事天’에 대해 쓴 바 있음, 『한국유교의 과제』, 127~137쪽) 마침 하서 도학의 근원이 되는 중용 대학

과 관련시켜 사천사상을 연구하였기에 초창한 것이다.

횡거 장재 학문의 바탕은 중용中庸이다. 송대의 도학전에서 “주역으로써 종宗(근원)을 삼고, 중용으로써 체體(몸)를 삼고, 공맹으로써 법을 삼았다.”고 횡거의 학풍을 평하였는데, 이러한 평은 하서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역에 통달하여 주역관상편을 썼으며, 하서 천명도에는 중화사상이 하서 도학의 중핵임이 잘 드러나 있다. 하서 시문에 중용과 관련된 것들이 무수히 나와 하서가 얼마나 중용을 중요시했는지도 알 수 있다.

성리학은 중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용을 떠나서는 성리학이 성립될 수 없을 정도였다. 백승중 교수는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에서 중용에 대한 열광이 조선사회를 어떻게 휩쓸었는가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 중용에 심취하였고, 심지어 세조는 중용을 직접 가르치기까지 하였다. 왕들이 중용에 몰두하니, 신하와 학자들이 중용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승중 교수는 “16세기 조선에서 형이상학적 연구를 시작한 이는 정지운, 김인후, 이황, 서경덕, 노수신 등이 대표적이었다. … 김인후는 성리학적 우주관이 집약된 태극도설의 일인자였다. 북송의 주 돈이가 저술한 태극도설은 불과 249자였으나, 우주의 생성과 인륜의 근원을 풀이한 것이었다. 무극이 태극이 되고, 이로부터 음양과 오행이 생겨나

그들의 조합으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우주관, 태극도설은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었다. 16세기 전반 조선에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한 선비가 김인후 말고는 거의 없었다. 때문에 정지운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김인후를 찾아갔던 것이다.”(82쪽)라고 서술하였다.

정조 임금도 “김문정은 실로 우리 동방의 주周 염계濂溪 같은 존재이다.”라 하면서, 또 이르기를 “김문정으로 말하면 대학과 서명의 은미한 말과 깊은 뜻을 비로소 발명하였으며, 거경직내居敬直內의 공부와 도학연원의 바름은 실로 사문의 종장이 된다.(승정원 일기)”고 칭송한 것을 보면 하서가 태극도설과 서명에 정통했음을 알 수 있다.

하서의 서명사천도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자들은 수백광년 떨어진 별처럼 아득하게 생각하고 연구에 겁을 먹는다. 확실한 자료나 문헌이 없으면 좀처럼 연구하지 않는다. 연구가 귀찮고 복잡하고 힘들고 무엇보다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명사천도』는 제목이 말해주는 바 그대로 서명에 담겨진 사천사상을 하서 김인후가 말이나 그림으로 그린 것임이 분명하다.

송대 유학자 쌍봉雙峯 요씨 饒氏는 “서명의 앞부분은 사람이 천지의 아들임을 밝혔고, 뒷부분은 사람이 천지를 섬기는 일은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하였다. 『국역 퇴계』집 1권 140

쪽) 이에 따라 후대에는 서명을 상도(上圖)와 하도(下圖)로 나누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중용으로부터 학문을 시작한 장재는 어떤 성리학자보다도 중용에 심취했다. 그러기에 서명 역시 중용의 천명사상과 우주관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주 염계의 태극도설과 장 횡거의 서명에 통달했던 하서의 천명도는 중용의 중화(中和)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하서의 서명사천도에는 중용과 서명의 천명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천명사상이 곧 사천상이다. 즉 부모를 섬기듯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 사천사상이다.

“하서의 천명도에는 기미(幾微)를 중시하여 당시에 중국은 물론 조선의 성리학사에 존재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천인합일의 이념이 밝혀져 있으니, 천명에 대한 해석에서 인간은 물론 금수나 초목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인성에 대해서도 성(性)을 중(中)으로 파악하여 천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 등이 근본적으로 성리학 해석의 새로운 장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용의 정신에 입각한 천인합일의 사유를 통하여 천명과 인간의 심성, 그리고 그 본성을 추구하기 위한 윤리실천의 문제를 일관된 체계로 집대성하고 있는 하서선생의 철학사상은 후세 정조대왕의 문묘종사 사제문에서 해동의 염계요호남의 수사로 성명음양의 심오함과 아득히 태극도설로 격치성정의 근원에 돌아가 제가의 오류를 내치고 이기사칠(理氣四七)의 변론

辯論으로 동지의 의문을 풀고 강의직방(剛毅直方)의 온오를 지녀 광명온수(光明溫粹)를 밖으로 발하니 바로 청수부용의 모습이라 하였다”는 김장수 원장의 평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하서는 추만 정지운에게 천명도를 그려 보내면서 뒷면에 7행에 불과한 제사(題辭)를 아주 간략하게 쓴 바 있다. 아마도 이때에 천명도에 대해 자세한 도설(圖說)을 쓰지 못한 것이 후회되어 죽음을 예감하면서 필생의 역작으로 이 서명사천도를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해본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용, 맹자의 사천사상, 서명, 주염계의 태극도설, 하서의 조신생사(弔申生辭), 양산보에 차운한 하서의 효부(孝賦), 하서 시문에 나타난 천명, 중화사상을 집적하여 유추하면 서명사천도의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본다.

끝으로 사천사상에 대해서는 김유곤 교수의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희의 사천지학(事天之學)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강연을 경청하시고 또 논문도 정독하시기를 바라면서, 김유곤 교수님의 <논문 요약>을 여기에 옮겨 심습니다.

‘중용’과 ‘대학’ 이해에 나타난 윤희의 사천지학의 구조는 인간이 하늘을 섬겨야만 하는 근본 원리,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하늘을 섬긴 지극한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인간의 성(性)과 도(道)란 천(天)의 명(命)

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성性和 도道의 근원인 천天을 섬겨야만 하는 숙명적인 존재라고 이해한다. 즉 사천이란 다른 아닌 인간의 본원에 대한 섬김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천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천畏天, 존심양성存心養性, 중용과 중화의 실천, 오달도五達道와 구경九經의 실천, 삼강령과 팔조목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천을 지극히 하게 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파악한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경지란 다른 아닌 오달도와 구경이 실현된 경지이며, 자신의 성性を 다하고[明明덕明明德] 남의 성性を 다하게 하여[신민新民] 극치에 이른 경지이며[지어지선止於至善], 평천하가平天下가 이루어진 경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윤 휴가 강조한 사천지학의 지향점은 성리학의 지향점과 정확하게 일치한

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성리학에서는 천天을 리理로 이해하고, 이러한 천理天理는 성性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성性 안에 내재된 천리를 자각하고 그 천리를 인륜에서 실현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물론 윤 휴도 천리가 성性으로 내재된 점을 인정하여 천명으로 받은 성性を 인륜에서 실현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성性的 근원인 천天이 인륜과 일용日用 사이에 항상 현현顯現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각하여, 천天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외천畏天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윤휴의 외천에 대한 강조는 성리학의 이법理法으로서의 천天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인륜 실천을 하도록 도모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간의 인륜 실천을 제고提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事天之學의 구조와 성격

김유곤(전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윤휴 경학의 구조

윤휴尹鑞(백호白湖, 1617~1680)가 남긴 경학 저술은 『백호전서白湖全書』 권36~46에 수록된 열 한 권의 『독서기讀書記』에 실려 있다. 그가 대상으로 한 경전은 『중용』, 『대학』, 『효경』, 『시경』, 『서경』, 『주례』, 『예기』, 『의례』, 『춘추』 등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윤휴 경학의 특징으로는 사서 중에서 『논어』와 『맹자』를 다루지 않고 『중용』과 『대학』만을 다룬 점, 『백호전서』 권38~40의 『효경장구孝經章句』, 『효경외전孝經外傳 상上·중中·하下』, 『효경외전속편孝經外傳續編 상上·중中·하下』 등 많은 분량을 『효경』에 할애한 점, 권43~46의 『내칙집석內則集釋』과 『내칙외기內則外記 상上·중中·하下』 등 본래 『예기』의 한 편에 불과한 『내칙』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그는 “『효경』은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말했는데 『내칙』은 실제로 부모를 섬기는 조목이고, 『중용』은 하늘을 섬기는 도리를 말했는데 『대학』은 하늘을 섬기는 조목이다.”¹⁾라고 하여, 『효경』과 『내칙』을 사친지학

事親之學의 도리와 조목의 구조로, 『중용』과 『대학』을 사천지학事天之學의 도리와 조목의 구조로 파악한다. 종합해 보면 그는 경전 중에서도 특히 『중용』, 『대학』, 『효경』, 『내칙』을 중시하여 자신의 경학 체계를 사친지학과 사친지학의 구조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윤휴 경학의 핵심 주제는 사친지학과 사친지학으로 집약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용』과 『대학』을 사친지학의 도리와 조목이라는 유기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윤휴 경학의 핵심 주제인 사친지학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중용』과 『대학』의 분장 구조

윤휴의 『중용』 관련 저술로는 『백호전서』 권35에 있는 「공자달도달덕구경지도孔子達道達德九經之圖」, 「중용지도中庸之圖」와 권36 『독서기-중용』에 있는 「중용장구차제中庸章句次第」, 「분장대지分章大旨」, 「중용주자장구보록中庸朱子章句補錄」 등이 전해진다.

윤휴는 『중용』의 분장 체제에 대해 주희의 『중용장구』의 4대절 33장 체제를²⁾ 따르지 않고 10장 28절 체제를 주장한다.³⁾ 윤휴의 『중용』 10장 28절 체제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⁴⁾

〈윤휴의 『중용』 10장 28절 체제〉

장	절	단락 (『중용장구』)	요지
1장	1절	1장	성인이 하늘을 섬기는 도리와 군자가 그 도리를 체득하는 일을 총론함. ⁵⁾
2장	2절	2장~3장	1장의 性·道·教에 대해 논하여 배우는 자에게 학문의 準則을 보여 줌. ⁶⁾
	3절	4장~6장	
	4절	7장~8장	
	5절	9장~10장	
	6절	11장	
3장	7절	12장	道不可離에 대해 논함. ⁷⁾
	8절	13장	
	9절	14장	
4장	10절	15장	‘莫見乎隱 莫顯乎微’에 대해 논함. ⁸⁾
	11절	16장	
	12절	17장	
5장	13절	18장	大本과 達道에 대해 논함. ⁹⁾
	14절	19장	
	15절	20장 1절~17절	
6장	16절	20장 18절~20절	致中和에 대해 논함. ¹⁰⁾
	17절	21장~23장	
	18절	24장	
7장	19절	25장	‘天地位 萬物育’에 대해 논함. ¹¹⁾
	20절	26장 1절~6절	
	21절	26장 7절~10절	
8장	22절	27장	致中和와 位育의 뜻을 다시 말하여 修道之教에 대해 논함. ¹²⁾
	23절	28장	
	24절	29장	

장	절	단락 (『중용장구』)	요지
9장	25절	30장	中和之德을 통해서 率性之道에 대해 논함. ¹³⁾
	26절	31장	
	27절	32장	
10장	28절	33장	戒愼恐懼의 의미를 통해서 天命之性에 대해 논함. ¹⁴⁾

윤휴는 『중용』 1장에 『중용』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2장~10장은 1장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¹⁵⁾ 2장~7장에서는 천명天命에서 만물육언萬物育焉까지 1장의 주제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8장~10장에서는 만물육언에서 천명까지 1장의 주제를 역순으로 설명한 것으로 본다.¹⁶⁾ 『중용』의 전체 의미를 담고 있는 1장은 성인이 하늘을 섬기는 도리와 군자가 그 도리를 체득하는 일을 총론한 것으로 파악한다.¹⁷⁾ 또한 1장에는 天인의 이치, 학문學問의 방법, 성정性情의 덕, 성신聖神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¹⁸⁾ 즉 그는 『중용』 1장에서 사천事天의 도리, 사천의 방법, 사천의 효과 등 사천지학에 대해 집약적으로 말하고, 2장~10장에서 이러한 사천지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윤휴의 『대학』 관련 저술로는 『백호전서』 권35에 있는 「대학지도大學之圖」와 권37 『독서기-대학』에 있는 「대학교본별록大學古本別錄」, 「대학전편대지안설大學全篇大旨按說」, 「대학후설大學後說」 등이 전해진다.

『대학』의 분장 체제에 대해서는 주희의 『대

학장구』의 경經1장 전傳10장 체재를¹⁹⁾ 따르지 않고, 『고본대학古本大學』에는 착간錯簡이나 결문闕文이 없고 그 차서次序 그대로 온전한 체재를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여 『고본대학』 체재를 인정하고,²⁰⁾ 4분절하여 경經1장 전傳3장 체재를 주장한다. 윤희의 『대학』 경1장 전3장 체재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윤희의 『대학』 경1장 전3장 체재〉

經·傳	단락 (『대학장구』)	요지 ²¹⁾
경1장	경1장, 전5장 1절 ~2절	『대학』의 본旨인 性을 밝힌다는 것의 구체적 강령과 조목을 설명하고, 이들의 本末 관계를 설명하여, 근본이 되는 일부터 먼저 행해야 함을 반복하여 설명.
전1장	전6장, 전3장 4절 ~5절	팔조목인 誠意에 대한 부연 설명.
전2장	전1장~ 전3장 3절, 전4장	삼강령인 明明德·新民·止於至善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서 終始와 本末의 의미까지 부연 설명.
전3장	전7장~ 전10장	팔조목인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대해 부연 설명.

윤희는 학문을 하는 목적은 性을 밝히는 것인데, 『대학』은 性을 밝히는 도리에 대해 설명한 경전이라고 파악하고,²²⁾ 경1장에서 그 本旨를 밝히고 전1장~전3장에서 경1장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²³⁾ 경1장 1절에서는²⁴⁾ 『대학』의 본지인 性을 밝힌다는 것의 구체적 강령이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지어지선止於至善임을 말하고,²⁵⁾ 2절에서는 이러한 강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立志

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²⁶⁾ 3절에서는 본말本末과 시종始終을 말하여 선후先後와 완급緩急의 순서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²⁷⁾ 4절과 5절에서는 삼강령의 구체적 실천 조목으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등 팔조목에 대해 말하고,²⁸⁾ 6절과 7절에서는 다시 본말과 선후의 뜻을 되풀이 하여 강조하고²⁹⁾ 전5장 1절~2절에서는 4절~7절의 의미를 결론지어 본말의 의미를 다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한다.³⁰⁾ 즉 경1장은 『대학』의 본지인 性을 밝힌다는 것의 구체적 강령과 조목을 설명하고 이들의 본말 관계를 설명하여 근본이 되는 일부터 먼저 행해야 함을 반복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경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인 전1장에서는 팔조목의 하나인 성의에 대해 설명하고,³¹⁾ 전2장에서는 삼강령인 명명덕·신민·지어지선의 일을 부연 설명하면서 종시終始와 본말의 의미까지 부연 설명하고,³²⁾ 전3장에서는 팔조목인 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³³⁾ 즉 전1장~전3장은 경1장에서 제시한 性을 밝힌다는 것의 구체적 강령과 조목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대로 윤희는 『중용』과 『대학』을 사천지학의 도리와 조목의 관계로 파악하여, 『중용』과 『대학』을 표리 관계가 있는 경전으로 이해한다.³⁴⁾ 따라서 『대학』의 본지인 性을 밝힌다는 것의 性은 다른 아닌 『중용』의 ‘천명天命으로서의 性性[천명지

위성天命之謂性』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을 사천지학의 조목에 대해 설명한 경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는 『대학』 경1장에서 사천지학의 조목에 대해 집약적으로 말하고 전1장~3장에서 사천지학의 조목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윤희는 『중용』을 10장 체재로 분장하고 1장에서 사천의 도리, 사천의 방법, 사천의 효과 등 사천지학에 대해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2장~10장에서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대학』을 경1장 전3장 체재로 분장하고 경1장에서 사천지학의 실천 조목에 대해 집약적으로 말하고, 전1장~3장에서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윤희의 『중용』과 『대학』에 대한 독자적인 분장 구조는 사천지학의 관점에서 이해된 결과라 하겠다.

사천지학의 구조

앞에서 언급한대로, 윤희는 『중용』은 사천지학의 도리를 설명한 경전으로 1장에 그 전체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1장 1절에서³⁵⁾ 천명天命·술성率性·수도修道를 말한 것은 인간의 성性是 천天에서 나온 것으로 바뀔 수 없고, 도道는 사물에 체현體現되어 있어서 분리될 수 없으며, 교敎는 인간에게 간직되어 있어서 그만둘 수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본

다.³⁶⁾ 또한 1절은 도道의 근원은 天으로부터 나왔고 그 도道를 닦는 수도修道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³⁷⁾ 즉 1절에서는 인간이 하늘을 섬겨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관계 구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³⁸⁾ 2절과 3절에서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을 말한 것은 군자가 외천畏天하여 수도修道하고, 경敬을 독실하게 하여 성誠을 다하며, 본원을 돈독하게 하여 기미幾微를 살피는 이유를 밝힌 것이라고 본다.³⁹⁾ 또한 군자의 학문은 자신의 마음에 근본하고 그 마음을 보존하는 방법은 성誠과 경敬을 위주로 해야 함을 말한 것으로 본다.⁴⁰⁾ 즉 2절과 3절에서는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 방법으로 계신공구와 신독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밝힌 것으로 파악한다. 4절에서 대본大本과 달도達道를 말한 것은 하늘은 본래부터 사람과 멀리 있지 않음을 밝히고, 모든 조화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함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⁴¹⁾ 또한 하늘이 내린 충효가 인간의 성정性情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대본大本과 달도達道가 바로 성정性情에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본다.⁴²⁾ 즉 4절에서는 하늘을 섬기는 근본 원리와 방법이 다름 아닌 인간의 성정에 있음을 밝힌 것으로 파악한다. 5절에서 “중화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라고 말한 것은 군자가 도를 닦아 확충해 나가는 공부를 지극히 하면, 즉 사천事天과 위기爲己의 노력을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⁴³⁾ 즉 5절은 하늘을 섬긴 궁극적 결과로서 그 지극한 효과를 밝힌 것으로 파악한다.

사천지학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와 그 구조를 담고 있다고 파악한 『중용』 1장에 대한 윤희의 이해를 정리하면, 1절에서는 인간이 하늘을 섬겨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관계 구조에 대해 밝히고, 2절과 3절에서는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 방법으로 계신공구와 신독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4절에서는 하늘을 섬기는 근본 원리와 방법이 다름 아닌 인간의 성정性情에 있음을 밝히고, 5절에서는 하늘을 섬긴 궁극적 결과로서 그 지극한 효과를 밝힌 것으로 파악한다. 즉 그는 『중용』은 사천지학의 도리를 설명한 경전이고, 그 전체적인 의미와 구조를 담고 있는 1장에서 인간이 하늘을 섬겨야만 하는 근본 원리,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 실천 방법, 하늘을 섬긴 결과로서 그 지극한 효과에 대해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정리하면, 『중용』 해석에 나타난 윤희의 사천지학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윤희가 보기에 인간이 하늘을 섬겨야만 하는 근본 원인은 하늘이란 바로 인간의 성성과 도도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성이란 천천의 명명으로 주어진 것이고[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인간이 마땅히 가야할 길로서의 도도란 천천의 명명으로 주어진 성성을 따르는 것이므로

[술성지위도率性之謂道], 인간의 성성과 도도란 천천의 명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성성과 도도의 근원인 천천을 섬겨야만 하는 숙명적인 존재라고 파악한 것이다. 즉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원에 대한 섬김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사천事天의 방법이란 천천의 명명으로 주어진 성성과 도도를 따르는 것, 즉 술성率性하고 수도修道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방법이란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이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수도修道의 노력이 지극해지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지극한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사천의 구체적 실천 방법

사천지학의 지향

윤희는 하늘을 섬긴다는 의미는 다름 아닌 '마음을 보존하고 천성을 배양하는 것[존심양성存心養性]'임을 분명히 말한다.⁴⁴⁾ 또한 천명天命으로 내재된 성성을 보존하고 잘 드러내는 존심양성의 방법으로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을 제시한다.⁴⁵⁾ 그는 계신공구란 군자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천의 방법으로, 동정動靜을 겸하여 본원을 지극히 하여 천리天理의 본연本然을 보존하여 잠시도 그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⁶⁾ 신독愼獨의 신愼은 정밀히 살피는 것이고, 독獨은 생각이 이미 발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곳이지만 자신만은 홀로 알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⁴⁷⁾ 따라서 신독이란 자신의 생각이 이미 발하여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는 즘음에 선악善惡과 진위眞僞를 살피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사특함을 막아 성誠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⁸⁾ 이와 같이 그는 천명으로 내재된 성性を 보존하고 잘 드러내는 계신공구와 신독을 사천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윤희는 군자가 계신공구와 신독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⁴⁹⁾ 그는 『중용』 1장 2절의 “도道는 잠깐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도야자道也者 부가수유리야 不可須臾離也].”를 설명하면서 도道を 떠날 수 없는 까닭은 잠깐 사이나 아무리 작은 일에도 천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⁵⁰⁾ 군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도修道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천이라고 말한다.⁵¹⁾ 『중용』 1장 2절의 “군자는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군자君子 계신평기소부도戒愼乎其所不睹 공구호기소부문공懼乎其所不聞].”의 ‘부도不睹’와 ‘부문不聞’이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곳이지만 천명이 항상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⁵²⁾ 계신공구는 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도修道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⁵³⁾ 이와 같이 윤희는 군자

가 천명으로 내재된 성性を 보존하고 잘 드러내는 계신공구와 신독을 하는 근본적인 까닭은 천명이 인심人心과 일용日用 사이에 항상 현현顯現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각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한편, 윤희는 중용中庸이란 천명으로서의 性을 의미하며, 또한 정밀하고 은미한 천명의 본체를 의미한다고 본다.⁵⁴⁾ 따라서 하늘이 내려준 정리正理이면서 상도常道인 중용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천이라고 말한다.⁵⁵⁾ 그러나 그는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천의 자세로 하늘을 두려워하는 외천畏天을 강조한다. 그는 “중니가 말하길, ‘군자는 중용을 행하고, 소인은 중용에 위배된다.’라고 하였다.”⁵⁶⁾에 대해, 오직 군자라야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조심하고 삼가는 공부가 있기 때문에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중용에 위배된다고 설명한다.⁵⁷⁾ 또한 “군자가 중용을 행하는 것은 군자로서 때에 알맞은 것이며, 소인이 중용에 위배되는 것은 소인으로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⁵⁸⁾에 대해, 군자가 중용을 행할 수 있는 까닭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때 그때 中에 처하기 때문이고, 소인이 중용에 위배되는 까닭은 천명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욕심을 부리로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⁵⁹⁾ 이와 같이 그는 천명의 본체인 중용을 실천하는 것이 사

천임을 말하면서, 중용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하늘을 두려워하는 외천畏天을 강조한다.

또한 윤희는 사천이 다름 아닌 존심양성 즉 자신을 완성하는 위기爲己임을 말하면서도 사천과 위기를 병행하여 언급한다. 그는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⁶⁰⁾에 대해, 사천과 위기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한다.⁶¹⁾ 또한 『중용』 33장 1절에 나오는 “비단옷을 입고 홑옷을 덧입는다[의금상경衣錦尙絳].”에 대해, 군자가 사천하고 위기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한다.⁶²⁾ 이와 같이 그는 사천이란 다름 아닌 존심양성 즉 위기임을 말하면서도 위기 앞에 사천을 병행하여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性의 근원[명命]으로서의 천천의 현현顯現을 인식하고 자각해야함을 거듭 강조한다.

정리하면, 윤희는 사천이란 천명으로 내재된 性을 잘 보존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말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性의 근원[명命]인 천천이 인심人心과 일용日用 사이에 항상 현현顯現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각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사천지학의 내용 : 존심양성存心養性

『중용』적 실천

윤희는 중용中庸에 대해 中은 ‘치우치지 않

음’을 의미하고 庸은 ‘언제나 일정함’을 의미하여, ‘치우치지 않음’은 동정動靜을 겸하고 있고 ‘언제나 일정함’은 중시終始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⁶³⁾ 이러한 중용은 천명으로서의 性을 의미하며, 또한 정밀하고 은미한 천명의 본체를 의미한다고 본다.⁶⁴⁾ 한편 그는 『중용』 1장 4절의 “희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 한다[희노애락지미발喜怒哀樂之未發 위치중謂之中].”에 대해, 희로애락은 정情을 의미하며 마음이 움직인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는 천리天理 그 자체로서 천명으로서의 性의 상태라고 설명한다.⁶⁵⁾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한다[발이개중절發而皆中節 위치화謂之和].”에 대해서는 이 性이 발하여 절도에 맞으면 천하의 연고에 통하고 천하의 일에 응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⁶⁶⁾ 즉 그는 중화中和의 中中은 性의 상태를 의미하고 화和는 性이 발한 정情이 절도에 맞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화는 성정性情의 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⁶⁷⁾ 이와 같이 그는 중용과 중화란 천명으로서의 성정性情을 의미하며, 또한 정밀하고 은미한 천명의 본체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란 하늘이 내려준 정리正理이며 상도常道인 중용과 중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윤희는 사천事天의 실천, 즉 천명의 본체인 중용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중용은 천명의 정리正理이고 性을 따르는 상

도常道로서 하늘에 근원을 두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기품氣稟과 물욕物欲에 구애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⁶⁸⁾ 즉 인간에게는 모두 똑같이 천명으로서의 성性이 내재되어 있지만 기질氣質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⁶⁹⁾ 따라서 지知와 우愚, 현賢과 부초不肖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부급過不及의 차이가 생기고, 도道가 밝혀지지 못하고 행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⁷⁰⁾ 그렇기 때문에 지知·인仁·용勇이 아니면 중용을 실천할 수 없고, 또한 지知·인仁·용勇은 성誠이 아니면 그 덕德을 이룰 수 없다고 본다.⁷¹⁾ 따라서 『중용』 6장에서⁷²⁾ 순舜의 지知를 말하여 이것을 알았음을 나타내고, 8장에서⁷³⁾ 안연顔淵의 인仁을 말하여 이것을 실천하였음을 나타내며, 10장에서⁷⁴⁾ 자로子路의 용勇을 말하여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나타내고, 11장에서⁷⁵⁾ 공자의 성誠을 말하여 실제로 이것을 체득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한다.⁷⁶⁾ 즉 그는 하늘을 섬긴다는 의미는 천명의 본체로서 성性を 의미하는 중용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지知·인仁·용勇과 성誠을 제시한다.

한편, 윤희는 사천이란 존심양성 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은 천하의 달도達道인 ‘친한 이를 친애하는[친친親親]’ 인仁和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는[장장長長]’ 의義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⁷⁷⁾ 그는 문왕의 효孝는 조상을 빛내고 자손을 보존하였고, 주공의 예禮는 귀천에 모두 통

용되어 천하에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천하의 달도達道로서 천명의 본체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⁷⁸⁾ 또한 그는 성인이 말한 도道란 오륜五倫과 구경九經 이외에 또 다른 도道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⁷⁹⁾ 즉 그는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천명의 본체가 존재하고 있는 천하의 달도로서의 오륜과 구경의 실천을 제시한다.

『중용』에서 오달도五達道는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곤제昆弟·붕우朋友의 관계를 의미하고, 삼달덕三達德은 지知·인仁·용勇이라고 말한다.⁸⁰⁾ 윤희는 오달도에 해당하는 군신의 의義, 부자의 친親, 부부의 별別, 곤제의 서序, 붕우의 신신信은 『서경』의 「순전」에 나오는 오전五典과 『맹자』에 나오는 인륜을 의미하고, 달도라고 말한 것은 천하고금을 막론하고 다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⁸¹⁾ 이 오달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知로써 이러한 도리를 알아야 하고, 인仁으로써 실천하고 용勇으로써 힘쓰는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한데, 이를 달덕達德이라고 말한 것은 천하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얻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⁸²⁾ 즉 윤희는 오달도란 오륜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道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능력인 지知·인仁·용勇을 잘 발휘하여 실천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중용』에서는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방

법으로 구경九經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경은 수신修身[몸을 닦음]·존현尊賢[어진 이를 높임]·친친親親[친한 이를 친애함]·경대신敬大臣[대신을 공경함]·체군신體群臣[여러 신하들을 보살핌]·자서민子庶民[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함]·래백공來百工[장인들을 오게 함]·유원인柔遠人[먼 나라 사람을 부드럽게 대함]·회제후懷諸侯[제후를 품어줌] 등이다.⁸³⁾ 윤희는 구경을 크게 수신·존현·친친으로 구분하고, 수신은 근본을 확립하는 것이고, 존현은 의義를 실현하는 것이며, 친친은 인仁을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⁸⁴⁾ 대신을 공경하면[경대신敬大臣] 그 예禮가 융숭할 것이고, 여러 신하들을 보살피면[체군신體群臣] 그 생각이 공평할 것이며, 제후를 품어주면[회제후懷諸侯] 그 덕德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풀이하여, 경대신·체군신·회제후를 존현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파악한다.⁸⁵⁾ 또한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서민子庶民] 갓난아이를 보살피듯이 하는 것이고, 장인들을 오게 하는 것은[래백공來百工] 나를 의지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먼 나라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유원인柔遠人] 나를 친하게 여겨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 자서민·래백공·유원인을 친친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파악한다.⁸⁶⁾

윤희는 이러한 구경은 요와 순이 자신의 명덕을 밝히고, 구경경九族을 친애하며, 백성을 고루 밝혀 주고, 만방萬邦을 화합하게

했던 일이라고 파악한다.⁸⁷⁾ 즉 그는 『중용』의 구경은 『대학』의 삼강령인 명명덕·신민·지어지선과 같은 의미로 파악한다. 또한 그는 구경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중용』 20장 13절을⁸⁸⁾ 설명하면서 여기서 제시한 구경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은 『대학』의 팔조목인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일과 같은 의미로 파악한다.⁸⁹⁾ 즉 그는 『중용』의 구경과 『대학』의 삼강령 팔조목을 동일한 일로 파악한다.

정리하면, 윤희는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 방법이란 천명의 본체로서 성性を 의미하는 중용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은 지知·인仁·용勇과 성誠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그는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존심양성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이란 천명의 본체가 존재하고 있는 천하의 달도인 오달도와 구경을 실천하는 것이며, 『중용』에서 제시한 구경은 『대학』의 삼강령 팔조목과 동일한 일이라고 파악한다.

『대학』적 실천

앞에서 언급한대로, 윤희는 『대학』은 사천지학의 조목에 대해 설명한 경전으로 이해하고,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 실천 강령과 조목으로 삼강령 팔조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삼강령 중 하나인 명명덕明明德은 자신의 성性を 다하는 것이고, 신민新民은 남의 성性を 다하게 하는 것이며, 지어지선止於至善은 자신의 성性を 다하고 남의 성性を 다

하게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극치에 이르러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한다.⁹⁰⁾ 즉 그는 사천의 구체적 실천 강령은 천명으로 받은 자신의 성性を 지극히 밝히고 나아가 다른 사람도 그들의 성性を 지극히 밝힐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삼강령의 구체적 실천 조목으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인 팔조목을 제시하고,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은 명명덕의 조목이고 제가·치국·평천하는 신민의 조목이라고 이해한다.⁹¹⁾ 팔조목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 조목으로 격물치지와 성의를 지목하고 그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한다.⁹²⁾

윤휴는 「대학후설大學後說」에서 팔조목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격물과 치지의 방법으로 널리 배움[박학博學], 자세히 물음[심문審問], 신중히 생각함[신사愼思], 밝게 분별함[명변明辯]을 제시하고, 성의와 정심의 방법으로 충신을 근본으로 함[본충신本忠信],⁹³⁾ 경외를 숭상함[숭경외崇敬畏],⁹⁴⁾ 인서를 체득함[체인서體仁恕],⁹⁵⁾ 강의를 주장함[주강의主剛毅],⁹⁶⁾ 일욕을 경계함[계일욕戒逸欲]을⁹⁷⁾ 제시한다. 수신 방법으로 언행을 조심함[근언행謹言行], 위의를 바르게 함[정위의正威儀], 몸을 편안히 함[안신安身],⁹⁸⁾ 예를 익힘[유예游藝]을⁹⁹⁾ 제시하고, 제가의 방법으로 효경을 돈독히 함[돈효경悖孝敬], 친친을 돈독히 함[독친친篤親親], 배필을 잘 고름[택배擇配],¹⁰⁰⁾ 근본을 정함[정본

定本],¹⁰¹⁾ 안팎을 분명히 분별함[근내외謹內外],¹⁰²⁾ 명분을 바로 세움[정명분正名分]을¹⁰³⁾ 제시한다. 치국과 평천하의 방법으로 기강을 바로 세움[정기강正紀綱], 토지를 경영함[경토지經土地], 천도를 근본으로 함[본천도本天道], 관직을 바르게 정함[정관직正官職], 귀신을 공경함[경귀신敬鬼神],¹⁰⁴⁾ 현능을 존경함[상현능尙賢能], 신공을 내 몸같이 여김[체신공體臣工], 소인을 조심함[근소인謹宵人], 백성을 자식처럼 여김[자백성子百姓], 제후를 회유함[회제후懷諸侯], 오랑캐를 제어함[어이적馭夷狄], 법도를 일으킴[분치용奮治庸], 폐정을 변통시킴[통폐정通廢政], 정치의 근본을 바로잡음[단정본端政本]을 제시한다.

정리하면, 윤휴는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삼강령 팔조목이란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 실천 강령과 조목을 뜻하며, 그 전체 의미는 천명으로 받은 자신의 성性を 지극히 밝히고 나아가 다른 사람도 그들의 성性を 지극히 밝힐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천지학의 성격

『중용』과 『대학』 이해에 나타난 윤휴의 사천지학의 구조는 인간이 하늘을 섬겨야만 하는 근본 원리, 하늘을 섬기는 구체적 실천 방법, 하늘을 섬긴 지극한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인간이 하늘을 섬겨야만 하는 근본 원인은 천天이란 인간의 성性和 도道의 근원

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간의 성性이란 천
 천의 명命으로 주어진 것이고, 인간이 마땅히
 가야할 길로서의 도道란 천천의 명命으로 주
 어진 성性을 따르는 것이므로 인간의 성性和
 도道란 천천의 명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성性和 도道의 근원인 천천을 섬겨
 야만 하는 숙명적인 존재라고 이해한다. 즉
 사천이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원에 대한 섬
 김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천을 실
 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외천畏天, 존심양성
 存心養性, 중용과 중화의 실천, 오달도五達道
 와 구경九經의 실천, 삼강령과 팔조목의 실천
 을 제시한다. 그는 사천을 실천하는 가장 근
 본적인 방법으로 외천을 강조한다. 사천이란
 천명天命으로 내재된 성性을 잘 보존하고 드
 러내는 것임을 말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
 로 성性的 근원[명命]인 천천이 인심人心과 일
 용日用 사이에 항상 현현顯現하고 있음을 인
 식하고 자각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하늘을 두려
 워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여 천명으로 내재된
 성性을 보존하고 잘 드러내기 위해 계신공구戒
 愼恐懼하고 신독慎獨하며, 중용中庸과 중화中
 和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존
 심양성存心養性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으로
 인륜과 일용日用을 제시하고, 오달도와 구경
 의 실천, 삼강령과 팔조목의 실천을 강조한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천을 지극히 하게
 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지
 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파악한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 경지란 다름 아닌 오달도와 구경이
 실현된 경지이며, 자신의 성性을 다하고[명
 명덕明明德] 남의 성性을 다하게 하여[신민新
 民] 극치에 이른 경지이며[지어지선止於至善],
 평천하平天下가 이루어진 경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윤희가 강조한 사천지학의 지향
 점은 성리학의 지향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 하겠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서는 큰 차이
 를 보인다. 성리학에서는 천천을 리理로 이
 해하고, 이러한 천리天理는 성性으로 내재되
 어 있다고 보고, 성性 안에 내재된 천리를 자
 각하고 그 천리를 인륜에서 실현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물론 윤희도
 천리가 성性으로 내재된 점을 인정하여 천명
 으로 받은 성性을 인륜에서 실현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그 전
 제 조건으로 성性的 근원인 천천이 인륜과 일
 용日用 사이에 항상 현현顯現하고 있음을 인
 식하고 자각하여, 天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외천畏天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윤희의 외천에 대한 강조는 성리학의
 이법理法으로서의 천천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인륜 실천을 하도록 도
 모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간
 의 인륜 실천을 제고提高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윤희는 자신이 강조
 한 외천畏天과 사천事天 개념의 기원을 요堯
 가 말한 “진실로 그 중中을 잡아야 한다.”, 순
 舜이 말한 “하늘의 명命을 받들어 어느 때나

조심하고 무슨 일이나 조심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인인仁人은 하늘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이 한다.”, 맹자가 말한 “군자는 마음을 보존하고 천성을 배양하여 하늘을 섬긴다.”고 한 것에 두고 있다.¹⁰⁵⁾ 즉 윤희의 사천지학은 사천을 통해 인륜 실천을 강조한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본원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 1) 『白湖全書』附錄, 「行狀 上」: 孝經言事親之道, 內則實其節文也, 中庸事天之道, 大學是其條目也.
- 2) 주희의 4대질 33장 체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조선조 유학자의 중용읽기』(서경요·김유곤, 문사철, 2009.) 41~52쪽 참조.
- 3)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右校中庸章序如此, 凡十章二十有八節.
- 4) 윤희의 10장 체제의 각 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조선조 유학자의 중용읽기』(서경요·김유곤, 문사철, 2009.) 240~249쪽 참조.
- 5)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一章, 此章總論聖人事天之道, 君子體道之事.
- 6)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二章, 此章論首章性道教, 而示學者之準則者也.
- 7)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三章, 此章論道不可離也.
- 8)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四章, 此章論莫見乎隱, 莫顯乎微也.
- 9)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五章, 此論大本達道也.
- 10)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六章, 此論致中和也.
- 11)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七章, 此章論天地位, 萬物育也.
- 12)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八章, 此章復申致中和位育之義, 以論修道之教者也.
- 13)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九章, 此章因中和之德, 以論率性之道者也.
- 14)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十章, 此章因戒慎恐懼之義, 以論天命之性者也.
- 15)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此中庸之大旨也, 其下九章, 蓋以申明此章之意焉.
- 16)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又按, 此篇首章, 聖學之凡也, 第二章以下, 皆所以釋首章之義, 自天命至萬物育焉備矣, 自八章以下, 則又申首章章首三句之義, 而從位育而上, 皆逆陳以反復之.
- 17)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一章, 此章總論聖人事天之道, 君子體道之事.
- 18)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天人之理, 學問之道, 性情之德, 聖神之能事備矣.
- 19) 주희의 경1장 전10장 체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1)』(김유곤, 『유교사상연구』 제43집, 한국유교학회, 2011) 170~174쪽 참조.
- 20) 『讀書記-大學』, 「大學全篇大旨按說」: 今竊以古本, 分經傳考傳義, 則其反復抑揚之際, 焯有微意弘旨, 而不可泯沒焉, 其言似疎而實密, 其序似亂而實整, 其所不言者, 乃所以深言之也, 恐不可遽有所移易損益, 以失前人傳受之意也.
- 21) 각 장의 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윤희의 『대학』 이해에 나타난 위학관』(김유곤, 『한국사상사학』 제41집, 한국사상사학회, 2012.) 208~211쪽 참조.
- 22)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今按學者所以明性也, 大學之書, 明性之道也.
- 23) 『讀書記-大學』, 「大學全篇大旨按說」: 抑今若以古本次序言之, 當分作四節, 上節爲經文, 備學修己治人志道迪德之全體, 而申申於本末始終先後之序, 蓋夫子所謂自古昔先王教人之法也, 次三節則孔門傳授, 因平日所聞於夫子, 而考論序次發揮經旨者也.
- 24) 윤희의 경1장을 설명하면서 傳과 節 표기는 편의상

- 『대학장구』의 체재에 따른다.
- 25)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故其曰明明德, 盡己之性也, 新民, 盡人之性也, 止至善, 成己成物之極也.
- 26)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此言明德親民, 所以止於至善之由, 而上言其功, 此以其志言, 蓋學莫先於立志.
- 27)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至於本末始終, 則欲其知先後緩急之序也.
- 28)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古之欲明明德以下, 所以條成己成物之事也, 而知止之道在是, 物格以下, 所以序能得之事也, 而明德親民之道備矣.
- 29)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自天子以下, 又以申本末先後之義也, 而天下治亂之故, 人倫厚薄之分, 又可見矣.
- 30)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至此則可謂成己成物, 而盡其性矣, 又可謂知性知天, 而盡其心矣, 故曰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
- 31) 『讀書記-大學』, 『大學全篇大旨按說』: 首釋誠意, 以謹君子小人之分, 兼陳學問進修之大方, 誠敬之功, 威儀之則, 篤恭之效.
- 32)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右一節, 傳者釋經文明德新民至善之事, 以及終始本末之義者也.
- 33) 『讀書記-大學』, 『大學全篇大旨按說』: 先言正心, 以及修身丁寧乎齊家, 而極陳治平之道, 與民同好惡共財用之義, 尤兢兢於君子小人之用舍, 終之以忠信驕泰義利心術之辨.
- 34) 또한 윤희는 『중용』과 『대학』을 표리 관계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대학』에서는 격물·치지의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용』에서는 學·問·思·辨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대학』에서는 持敬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중용』에서는 첫머리에서 戒愼恐懼의 일을 말하였으며, 『중용』에서는 균자와 소인의 好惡와 利義에 관한 설명이 없으나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다. (『讀書記-大學』, 『大學全篇大旨按說』: 又按大學, 未著作者, 考漢書賈逵之言, 孔伋窮居於宋, 懼家學不明, 而先聖之道墜, 作大學以經之, 中庸以緯之, 此固未知所據,

- 二書實相表裏, 蓋大學不言格致之事, 而中庸悉學辨之義, 大學不言持敬之說, 而中庸首言戒愼恐懼之事, 中庸不言君子小人好惡利義之說, 而此篇則實反復之不置, 既懇懇於愼獨幾微之際, 又屢歎之乎國家天下之治亂得失存亡, 豈所謂經緯表裏者歟.)
- 35) 윤희는 1장을 주희의 『중용장구』의 1장과 같이 5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 36)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其曰天命率性修道云者, 所以明性之出乎天而不可易也, 道之體乎物而不可離也, 教之存乎人而不可已也.
- 37)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首言道之大原出於天, 而修道之責則在人.
- 38)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此三者, 天之所以爲天, 人之所以爲人, 物之所以有則, 而君子所以立心事天之大本也.
- 39)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戒懼愼獨云者, 言君子所以畏天而修道也, 篤敬而致誠也, 敦本原而審幾微也.
- 40)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次言君子之學本乎吾心, 而存心之道主乎誠敬.
- 41)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其曰大本達道云者, 所以明天之未始遠乎人也, 而知萬化之出乎吾心也.
- 42)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又次言天之降衷, 不外乎性情, 而大本達道之在是.
- 43)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至於致中和天地位萬物育云者, 又所以極夫君子修道擴充之功, 而有以著夫事天爲己自然之效也.
- 44) 『白湖全書』 권35, 『中庸之圖』: 故曰君子存心養性, 以事天也.
- 45)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右第十章, 此章因戒愼恐懼之義, 以論天命之性者也, 首言君子立心爲己之義, 次言愼獨之事, 次言戒愼恐懼之事, 皆所以事天也.
- 46)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君子欽敬之功, 自其未有聞見之際, 所以兼動靜, 極本原, 以存天理之本然, 而勿使有須臾之間也.
- 47)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愼者, 精審之也, 獨者, 念慮之發, 人之所不睹, 而已所獨覺者也.

- 48)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審其善惡真偽之分於此際, 而勿使其或差, 所謂閑邪存其誠也.
- 49)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戒懼慎獨云者, 言君子所以畏天而修道也, 篤敬而致誠也, 敦本原而審幾微也.
- 50)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道之所以不可離者, 天命也, 暫於瞬息微於毫忽, 莫不有天命焉, 所以不可須臾離也.
- 51)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唯君子知其不可離而修之, 所以事天也.
- 52)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不睹不聞, 視聽之所不及, 天命之所在也.
- 53)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戒懼恐懼, 君子畏天之心, 修道之事, 所謂教也.
- 54)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此篇首尾以天命之性爲言, 而所謂中庸者, 所以言天命精微之體也, 故以名篇.
- 55)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此一節言中庸之爲德, 降衷之正理, 天下之常道, 君子存之, 所以事天也, 反之則爲小人.
- 56) 『中庸』2장 1절: 仲尼曰, 君子, 中庸, 小人, 反中庸.
- 57)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唯君子爲能有畏天之心, 兢業之功, 故由是, 小人不知天命, 而不畏也, 故反是.
- 58) 『中庸』2장 2절: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反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 59)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君子既有畏天之心, 而又能隨時以處中, 小人不知天命之可畏, 所以肆欲而妄行.
- 60) 『中庸』1장 5절: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 61)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至於致中和天地位萬物育云者, 又所以極夫君子修道擴充之功, 而有以著夫事天爲己自然之效也.
- 62)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衣錦尚絅, 此君子事天爲己之心也.
- 63)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中者不偏之謂, 庸者有常之謂, 不偏兼乎動靜, 有常通乎終始.
- 64)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此篇, 首尾以天命之性爲言, 而所謂中庸者, 所以言天命精微之體也, 故以名篇.
- 65)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喜怒哀樂, 情也, 心之動也. 未發則渾然天理矣, 所謂人生而靜, 天之性也.
- 66)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發, 感發也, 發而中節, 則有以通天下之故, 應天下之事矣.
- 67)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謂之中者, 不偏不倚, 萬化攸出也, 謂之和者, 無所乖戾, 上下同流也, 所以言性情之德也, 心之體用然也.
- 68)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蓋中庸者, 天命之正理, 率性之常道, 是固出乎天, 存乎人者, 而人不能無氣稟物欲之累焉.
- 69)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蓋降衷秉彝, 固純粹精也, 而氣質之變, 有不能齊者.
- 70)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唯知愚賢不肖之殊才, 則其爲過不及之差, 而道之所以不明不行也.
- 71)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非知仁勇, 無以修道也, 三者非誠, 又無以成德也.
- 72) 『中庸』6장: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 73) 『中庸』8장: 子曰, 回之爲人也, 擇乎中庸, 得一善, 則拳拳服膺, 而弗失之矣.
- 74) 『中庸』10장: 子路問強, 子曰, 南方之強與, 北方之強與, 抑而強與, 寬柔以教, 不報無道, 南方之強也, 君子居之. 衽金革, 死而不厭, 北方之強也, 而強者居之, 故君子, 和而不流, 強哉矯, 中立而不倚, 強哉矯, 國有道, 不變塞焉, 強哉矯, 國無道, 至死不變, 強哉矯.
- 75) 『中庸』11장: 子曰, 素隱行怪, 後世有述焉, 吾弗爲之矣. 君子遵道而行, 半塗而廢, 吾弗能已矣. 君子依乎中庸, 遯世不見知而不悔, 唯聖者能之.
- 76)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故大舜之知, 所以知此也, 顏淵之仁, 所以行此也, 子路之勇, 所以強此也, 而仲尼之誠, 又所以實體乎此者也.
- 77) 『白湖全書』 권35, 『中庸之圖』: 故曰君子存心養性, 以事天也, 親親仁也, 長長義也, 無他, 達之天下也, 此孟氏之受於子思者也.

- 78) 『讀書記-中庸』, 「分章大旨」: 文王之孝, 光乎祖宗, 而子孫保之, 周公之禮, 達乎貴賤, 而天下行之, 此蓋天下之達道, 而所謂天命之本體者, 實不外乎是也.
- 79)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聖人之所謂道者, 五倫九經之外, 無他道也.
- 80) 『中庸』 20장 7절: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五者, 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 一也.
- 81)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君臣之義, 父子之親, 夫婦之別, 昆弟之序, 朋友之信, 五者, 帝典所謂五典, 孟子所謂人倫是也. 謂之達道, 天下古今之所共由也.
- 82)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知以知之, 仁以行之, 勇以強之, 三者, 夫子所謂君子道者三, 孟子所謂知言養勇是也. 謂之達德, 天下古今之所同得也.
- 83) 『中庸』 20장 11절: 凡爲天下國家, 有九經, 曰修身也, 尊賢也, 親親也, 敬大臣也, 體群臣也, 子庶民也, 來百工也, 柔遠人也, 懷諸侯也.
- 84)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修身, 立本也, 尊賢, 務義也, 親親, 惇仁也.
- 85)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敬大臣, 則其禮隆矣, 體群臣, 則其意公矣, 懷諸侯, 則其德博矣, 此則尊賢之等也.
- 86)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子庶民, 則如保赤子也, 來百工, 則欲其賴我以生也, 柔遠人, 則欲其親我而依歸也, 此親親之殺也.
- 87)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此堯舜明峻德, 親九族, 平章百姓, 協和萬邦之事.
- 88) 『中庸』 20장 13절: 齊明盛服, 非禮不動, 所以修身也, 去讒遠色, 賤貨而貴德, 所以勸賢也, 尊其位, 重其祿, 同其好惡, 所以勸親親也, 官盛任使, 所以勸大臣也, 忠信重祿, 所以勸士也, 時使薄斂, 所以勸百姓也, 日省月試, 既稟稱事, 所以勸百工也, 送往迎來, 嘉善而矜不能, 所以柔遠人也, 繼絕世, 舉廢國, 治亂持危, 朝聘以時,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
- 89)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此格誠正修齊治平之事, 所以彌綸九經之道者也.
- 90) 『讀書記-大學』, 「大學古本別錄」: 故其曰明明德, 盡己之性也, 新民, 盡人之性也, 止至善, 成己成物之極也.
- 91) 『白湖全書』 권35의 「大學之圖」에는 明明德 아래에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이 배치되어 있고, 新民 아래에 齊家·治國·平天下가 배치되어 있다.
- 92) 윤희가 이해한 格物致知와 誠意的 의미, 격물치지의 방법, 격물치지와 성의의 관계, 「대학」의 格물치지와 「중용」의 尊德性和 道問學의 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윤희의 「대학」 이해에 나타난 위학관」 (김유곤, 『한국사상사학』 제41집, 한국사상사학회, 2012.) 214~220쪽 참조.
- 93) 말없이도 남이 믿는 것, 덕에 나아가는 충심, 말을 다듬어 세우는 성실, 남을 상대할 때의 충심.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本忠信-不言之信, 進德之忠, 修辭之誠, 與人之忠.)
- 94) 존양의 敬, 성찰의 敬, 일에 임했을 때의 敬.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崇敬畏-存養之敬, 省察之敬, 臨事之敬.)
- 95) 修道의 仁, 推己의 恕, 克己의 仁.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體仁恕-修道之仁, 推己之恕, 克己之仁.)
- 96) 進修의 용기, 改過의 용기, 固守의 용기.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主剛毅-進修之勇, 改過之勇, 固守之勇.)
- 97) 명예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고, 태만과 황망을 경계하고, 방종과 횡포를 경계하고, 사특하고 의혹된 일을 경계한다.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戒逸欲-好名之戒, 怠荒之戒, 縱暴之戒, 邪惑之戒.)
- 98) 음식을 절제하고,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알맞게 하고, 질병을 조심한다.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安身-節飲食, 時勞逸, 慎疾告.)
- 99) 욕예를 익히고, 뜻을 잃는 것을 경계한다.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游藝-修六藝, 戒喪志.)
- 100) 명문가를 고르고, 바른 혼인을 하고, 내치의 본보기가 되고, 폐립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擇配-簡名家, 正大婚, 刑內治, 謹廢立.)

- 101) 일찍부터 잘 가르치고, 미리 근본을 확립시켜주고, 스승과 친구를 잘 고르게 하고, 버릇없는 일을 못 하게 하고, 난잡한 말을 경계하고, 불효를 꾸짖는다.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定本-早喻教, 豫建立, 擇師友, 簡嫌御, 戒說亂, 誅不孝.)
- 102) 궁중 여인의 정치 참여를 경계하고, 형벌을 받은 사람이 곁에 있지 못하게 하고, 뇌물과 정사를 어지럽히는 여자를 경계하고, 내치와 외치를 분별한다.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謹內外-宮闈與政之戒, 刑人在側之戒, 苞苴女謁之戒, 辨內外之治.)
- 103)妃와 妾을 구분하고, 嫡과 庶를 구분하고, 음탕한 여자를 경계한다.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正名分-妃妾之分, 嫡庶之分, 孽嬖之戒.)
- 104) 祀典을 정하고, 祭享을 근엄히 하고, 祝史를 잘 선발하고, 蓍龜를 귀중하게 여긴다. (『讀書記-大學』, 『大學後說』: 正祀典, 嚴祭享, 簡祝史, 重蓍龜.)
- 105) 『讀書記-中庸』, 『中庸朱子章句補錄』: 帝堯所謂允執厥中, 大舜所謂勅天之命, 維時維幾, 孔子所謂仁人之事天如事親, 孟子所謂君子存心養性以事天, 同此道也.

갈등과 타협

갈등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은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갈등은 늘 우리 곁에 있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없애려고 애를 쓰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그 정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처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에는 어차피 굴곡과 매듭이 있고, 매듭이 있어서 키가 크는 대나무처럼 삶을 이겨내야 마음의 힘도 성장합니다. 매듭 없는 인생을 꿈꾼다면 환상일 뿐입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환상과 기대는 살아가는 일을 더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심해질 가능성도 큼니다. 사회적 갈등의 경우에 정신분석의 경험을 옮겨 풀어본다면 이리합니다. 우선, 갈등의 정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진보와 보수의 성향은 어디에나 섞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안에도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고 다른 면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쪽을 없애버리려고 덤빈다면 저항과 싸움만 일으킵니다. 정신분석이 한때 주장했던 갈등제거 목표처럼 낱아서 버리는 방법입니다. 갈등의 원천인 양 측면을 서로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공존의 타협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신분석의 자유연상처럼 역시 말은 쉬우나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갈등의 매듭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모여 사는 사회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도연 『마음의 지도』

중용, 새로운 하늘, 생태주의의 길

백승중(교수)

새로운 하늘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배층이 더욱더 완고한 보수성으로 무장하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역사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이념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정감록’ 반란 사건이 자주 일어났고, 그때마다 평민들이 역사의 전면에서 부상했다. 풍수지리, 의학, 점술에 관심을 가진 ‘평민 지식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리학적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했다.(백승중, 『정조와 불랑선비 강이천』, 푸른역사, 참조)

그것을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으로 융합한 것이 동학이다. 그리고 동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증산교와 원불교 등의 신흥종교였다. 그들은 물론 종교 조직이었으나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한 신흥세력이었다.

동학은 『중용』의 하늘을 새롭게 해석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곧 하늘이었다. ‘천주를 섬기라(시천주侍天主)’는 최제우의 말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했다. ‘천주를 봉양하라(양

천주養天主)’는 최시형의 말 역시 새로운 세계관으로 가는 첩경이었다. 또한 최시형은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 하여, 사람이 하늘로서 벼나 보리 같은 하늘을 먹는다고도 말했다. 만물이 다 하느님이요, 너도 하느님, 나도 하느님, 사람도 물건도 본질적인 차이나 구별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이런 판국이라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사라졌고,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지존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졌다. 『중용』에 언급된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된 경지(경천합일)가 새롭게 정의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수만을 헤아리는 평민들이 불과 수년 사이에 동학에 입문했다.

신흥종교가 창출한 새로운 세계관의 특징은 무엇일까. 20세기 전반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은 이렇게 말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는 개벽의 시간이 왔다고 선언했다. 완전히 새 세상을 만들자는 부르짖음이었다. 물질적 근대화에 그치지 말고, 정신적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생태주의의 길

그로부터 다시 8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중용』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제야말로 또 한 번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은 지나치게 파괴되었다. 사회정의도 실종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공멸을 염려하는 단계가 되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오염된 지하수와 농약 묻은 먹거리를 두려워한다.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실업률은 더욱 높아가고, 계층간의 소득 차이도 갈수록 벌어진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우주관이 필요하다는 외침도 여러 곳에서 들린다. 인간중심의 사고는 오래전에 한계를 드러낸 상태다. 이대로라면 인간은 결국 지구의 파괴자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용』에 따르면 하늘과 땅, 만물과 사람은 하나로 연결된 존재다. 그런데 우주만물에는 어디나 불가분의 도리가 있다. 인간이 이 도리를 깨쳐 정성껏 실천에 옮기면 천지만물이 제자리를 되찾고, 천지와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사물을 온전히 기를 수 있다. 『중용』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인간이 그림자 없으니까.

『중용』이 선언적으로 명시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한 이가, 20세기 후반의 한국 사회에도 존재하기는 했다. 무위당 장일순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한 알의 곡식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천명했다. 그의 길은 동학의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의 사상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노자와 공자, 예수와 부처의 길도 그는 아울러 실천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장일순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로 융합해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사상을 길러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장일순이 서슴없이 나아간 그 길은, 일찍이 유영모와 함석헌이 개척한 인생의 새 길과도 일맥상통했다. 그들은 모두 『중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평화와 생명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지난 2천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중용』은 위기의 시대마다 늘 새롭게 해석되었다는 점이다. 21세기라고 무엇이 크게 다를까. 새 시대의 『중용』 해석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의 평화를 위한 헌장을 되새기는 작업이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는 새 시대를 이끌 옹호한 정신과 강한 실천력을 지닌 분들이 많을 줄로 믿는다. (백승중,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 287~291쪽)

하서 김인후 선생 추향제 봉행

하서 김인후와 고암 양자징을 모시는 추향제가 지난 9월 17일(음력 8월 19일 정사丁巳)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추향제에는 김동원 전북대 총장, 박수석 전북 장수향교 전 전교, 권갑성 경남 합천 태동서원 주인, 유종현 충청 유림 원로,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선병국 성균관 부관장,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를 비롯 유림과 울산김씨 종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향을 마친 후 초헌관을 맡은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청절당에서 ‘현대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론했다. 김총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갈등지수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빈부갈등이 깊으며, 이는 국가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장하고, 성리학이 추구하는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면 사회 발전과 함께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암서원은 호남 유림이 하서와 제자 고암 양자징(1523~1594)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선조 때 창건한 사우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한 곳이다.

추향제가 끝난 뒤 ‘제17회 하서 추모 유적지 탐방 글짓기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 대회에서 「존경하는 하서 김인후 선생님을 기억하며」라는 글을 쓴 박진주 양(장성 중앙초 등 5학년)이 금상을 받았다.

제헌절에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인촌 사랑방’발족하다

김형석 교수 “인촌 없었다면 독립도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

지난 제헌절에 고창군 문화의전당에서 남시욱 21세기평화연구소 이사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조강환 동우회장, 김광희 전 언론인회 부회장을 비롯한 각계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촌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인촌 사랑방’ 발족식을 가졌다.

특별연사로 참석한 김형석 철학자는 “제 인생의 스승을 두 분만 꼽으라면 도산 안창호선생과 인촌 김성수 선생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50년 중앙중학교 교사 재직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만난 인촌선생은 살면서 만난 누구보다도 인간애가 많았다”며, 3.1운동의 주역인 인촌이 없었다면 독립도, 대한민국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나 잘한 일도 실수한 일도 있다. 정치적으로 찍은 낙인은 시일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는 인촌선생이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송계백선생에게 독립선언서 인쇄 및 여행 비용을 몰래 지원한 일화를 소개하며 ”인촌은 독립운동에 누구보다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인촌 사랑방’이라는 이름은 서울 종로구 계동의 인촌고택 사랑방에서 건국헌법(제헌헌법)과 농지개혁법의 초안이 사실상 탄생했

다는 점에서 착안하고, 모임을 제헌절에 발족한 것이다.

제33회 인촌(仁村)상 시상식 성대히 거행

교육 이돈희, 언론·문화 한강, 인문·사회 김호동, 과학·기술 박병욱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2019년 제33회 인촌상 수상자를 지난 9월 5일 선정 발표하고, 인촌선생의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저명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촌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각각 상금 1억원과 메달을 수여했다.

수상자로는 교육에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 언론·문화에 한 강 소설가, 인문·사회에 김호동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에 박병욱 서울대 교수가 선정되었다.

인촌상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영)는 올해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회, 과학·기술 4개 부문에 대해 5월 1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해 8월 말까지 권위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인촌기념회 이용훈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3·1운동의 책원지였던 중앙학교 교주 인촌 선생은 동료들에게 늘 성실과 근면을 당부했다"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다른 열정과 신념으로 업적을 쌓으며 사회에 보탬이 된 수상자 네 분이 더욱 역량을 발휘하시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는 일제 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동아일보와 경성방직을 설립하고 중앙학교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한 인촌 김성수(金性洙) 선생이 남긴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인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호남 공자 하서의 선비정신 깃든 문화유산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 홍선대원군은 ‘호남팔불여(湖南八不如)’를 말하면서 ‘학문으로 는 장성에 견줄 만한곳이 없다’고 했다. 장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사(修辭)로 지역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말이다. 장성이 ‘문필(文筆)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은 것은 호남 유림들이 세운 필암서원의 영향이 크다.

사적242호인 필암서원은 장성 출신 하서 김인후(1510~1560)를 기리기 위해 1590년 기산리에 건립됐다. 1540년 문과에 합격한 하서는 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다. 인종은 스승인 하서에게 목죽도를 선물할 만큼 존경하고 아꼈다. 그러나 인종이 1545년 즉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사회가 발발하자 장성으로 낙향해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건물이 전소됐지만 1624년 지역 유림이 재건했다. 지금 자리(필암리)로 서원을 이정한 것은 1672년이다. 1796년 정조는 ‘조선 개국 이래 도학(道學), 절

의節義, 문장文章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라며 그를 문묘文廟에 종사하였다.

필암서원은 학문을 중시하던 하서의 뜻을 따라 앞쪽은 교육과 학문의 공간으로, 뒤쪽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배치했다.

하서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현 중의 한 사람이다. 하서의 학문적 위업을 기리는 필암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

필암서원에는 다른 서원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다. 경작각敬藏閣이다. 경작각에 걸려 있는 편액 글씨는 정조가 초서로 쓴 친필이다. 임금이 쓴 글씨는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망사로 씌워져 있다. 도유사 김인수는 “필암서원은 강학과 제향 의례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청렴과 절의, 학문 탐구 등 선비정신을 배우려는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필암서원 매년 한글백일장 ‘학술발표회 개최’

필암서원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다양한 문화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사회의 서원이 단순히 유교 교육 공간으로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대표적인 사업이 한글백일장이다. 2002년부터 열린 전국한시백일장대회를 2008년부터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한글백일장으로 변경해 장성교육지원청과 함께 장성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서 선생 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17회째로 인성예절교육 현장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 광주와 인근지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방침이다.

필암서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구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3월 수당재단과 함께 전남 장성과 전북 순창 지역 고교 3학년생 50명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필암서원과 수당재단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장성과 순창의 고교생들에게 장학금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수당재단은 삼양그룹 창업자인 고 수당 김연수 회장과 가족이 1968년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필암서원은 강학이라는 서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학술발표회와 경서강독회를 열고 있다.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성황리에 마쳐

장성 필암서원 대한민국 넘어 “인류의 유산”
되다.

기념식수인 금빛노을 주목. 역사적 가치 영원
히 지속되길

지난 10월 23일 호남 최대의 사액서원(국가 공인 서원)인 장성 필암서원(사적 제242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한국의 서원” 필암서원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을 지역주민과 함께 기념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개호 국회의원, 유두석 군수, 차상현 군의회의장 및 의원, 사회, 기관단체장, 울산김씨문중 유림 지역주민 등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으로 장성 우도농학과 김은숙(전남무형문화제 제59호)의 가야금병창이 펼쳐졌으며, 본행사에서는 세계유산 기념비 제막식과 기념식수가 이어졌다.

기념식수는 “금빛노을 주목”으로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강인한 생명력과 단단한 껍질을 지닌 수목으로 장성 필암서원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선정됐다.

행사 말미에는 유두석 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차상현 군의회의장 김인수 필암서원 도유사 등 1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증서 선포식을 가졌다. 기념식 말미

는 김덕수 사물놀이와 빛고을국악관현악단이 장식해 행사에 참석한 1,300여 명의 군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등재의 기쁨을 나눴다.

성리학의 대가인 김인후 선생을 제향하는 장성 필암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호남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서원으로, 현재 필암서원은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청렴교육의 필수코스다.

필암서원 유네스코 등재 고유제 봉행

유림·문중 대표 등 150여 명 참석

지난 19일 유네스코 등재를 고하는 고유제가 필암서원 우동사와 중평 하서 종가 부조묘에서 봉행되었다. 필암서원 집강들이 주관한 우동사 고유제에서는 고유문을 낭독하고 박병호 원장이 헌관으로서 잔을 올렸다.

한편 중평 하서 종가에서는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서 부조묘에 고유문을 낭독하고 김치근 종손이 헌관으로서 헌작하였다.

하서 김인후 선생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고하는 의미를 지녔으며 군은 지난 7월 필암서원이 유네스코의 등재확정 발표 이후 열리는 최초의 공식행사라고 설명했다.

장성 필암서원은 사적 제242호로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문묘에 위패가 안치된 지역 유림의 종장인 조선 중기의 문신 하서 김인후(1510~1560)선생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1590년(선조 23년) 그의 고향인 장성읍 기산리에 건립됐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지만 1624년에 자리를 옮겨 황룡면 필암리에 다시 건립됐다. 서원 이름인 ‘필암筆巖’은 김인후 선생의 고향인 맥동 마을 입구에 있는 ‘붓처럼 생긴 바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호남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서원으로 현재 필암서원은 장성군이 2011년부터 조선 청백리 생활을 체험하는 청렴교육장으로,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청렴교육의 메가로 발돋움 했다

장성군과 필암서원은 고유재 봉행을 시작으로 춘·추향제와 경서강독회, 각종학술 발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술 출판행사와 기념비 제작도 추진한다. 유두석 군수는 “앞으로 필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널리 알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연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포부를 말했다.

전남도 종가 활성화를 위한 종가 학술심포지엄 개최

9월 23일 세계문화유산 장성 필암서원에서

전라남도 종가 활성화를 위한 <종가 학술심포지엄>이 전라남도 주최, 전남도 종가회(회장 윤 형식) 주관으로 지난 9월 23일 세계

문화유산 장성 필암서원에서 전국의 여러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부에서는 축하공연, 기념행사에 이어 광주광역시청 강신기 전 기획실장의 종가 활성화화를 위한 조례 방안·발제가 있었고, 조용헌, 김학범, 류성룡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2부에서는 이배용 문화재위원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이 ‘종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한국 전통조경학회 홍광표 고문이 ‘종가 정원의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을 발표했고, 한국국학진흥원 조정현 연구원이 ‘종가 활성화화를 위한 경북 종가 사례’를, 오석민 문화재 전문위원이 ‘종가활성화를 위한 충남종가 사례’를 발표했고, 조용헌 석좌교수 류내영 프랑스 미술사학 박사,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본회 새 이사에 김양수 전 장성군수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인사가 있었다. 임기가 만료된 김상현 이사가 사임하고, 김양수 전 장성군수가 새 이사로 선임되었다. 김재수, 이충원, 김세곤, 김봉곤 이사는 연임되었고, 김승규 감사도 연임되었다.

문화유산 등재 축하 화환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과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무대 우측		무대 좌측	
1	울산김씨대종회장 김달수	1	필암서원 원장 박병호
2	울산김씨문정공도유사 김인수	2	한국의 서원관리단 이배용
3	울산김씨문정공종손 김치근	3	동아일보사장 김재호
4	울산김씨장파(사정공종중)김관중	4	하서학술재단이사장 김상하
5	울산김씨계파(장산종중) 김용대	5	삼양그룹회장 김 윤
6	울산김씨울산파도유사김기철	6	동아꿈나무재단이사장 김병건
7	울산김씨장성종친회 김을수	7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
8	울산김씨광주종친회 김재수	8	장성향교 전교 문영수
9	울산김씨문정친목회장김상백	9	장성문화원장 김봉수
10	울산김씨 밀등회장 김상언	10	장성군노인회장 반강진
11	순창훈몽제 김병운 운영위원장	11	장성축협장 차장곤
12	하서학술회 이사 김상열	12	(주)하서출판사 사장 김병준
13	울산김씨회암공종중 김상술	13	태양전자주식회사 김영수
14	울산김씨 맥동파종중	14	울산김씨 장성군공직자회
15	돈암서원 김건중 원장	15	협신석재 사장 정인택
16	재광장성향우회장 박승현	16	그레이스화원 김동원
17	장성꽃매달 사장 김태균	17	담양향교 전교 김용조
18	필암서원 산양회	18	전남대학총동창회장 박승현
19	광주전남수의사회 김중배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 속의 약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고영진 교수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思庵}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 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 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
- 2017년 7월 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원광대 김봉근 교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와 도학” 강연
- 2017년 10월 15일 추향제 올리고 정운엽 초헌관 “하서 선생은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 강연
- 2017년 12월 4일 광주향교에서 17회 정기총회 후 조선대 이종범 교수 “하서 김인후의 출처의리와 도학세계”란 주제로 강연
- 2018년 4월 5일 춘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정환담 학장이 “하서 사상의 사적맥락에 관한 고찰”이란 논제로 강연
- 2018년 9월 22일 추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가 “유교에 대한 이해”란 논제로 강연
- 2019년 3월 21일 춘향제 올리고, 오세인 초헌관(전 광주교검장)이 “유학전통의 계승과 유림의 역할” 강연.
- 2019년 7월 27일 집성관에서 김장수(동양문화학 회장) “서명사천도 연구를 위한 발제”, 탁현숙(조선대 교수)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시 고찰” 강연
- 2019년 8월 17일 우등사에서 세계유산 등재 고유제(박병호 원장), 종가 부조묘에서 종손과 종친 고유제
- 2019년 9월 17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김동원(전북대학교 총장) “현대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강연
- 2019년 10월 23일 세계유산등재 기념비 제막식 축제

중용 14장 君子的處身

군자는 그 자리에 처하여 그 자리에 알맞은 행동에 최선을 다할 뿐,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부귀에 처해서는 부귀에 알맞게 행하며, 빈천에 처해서는 빈천에 알맞게 행하며, 이적에 처해서는 이적에 알맞게 행하며, 환란에 처해서는 환란에 알맞게 행한다.

군자는 들어가는 곳마다 스스로 언지 못함이 없다. 윗자리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아니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할 뿐, 남에게서 내 삶의 원인을 구하지 아니하니 원망이 있을 수 없다. 위로는 하늘을 원망치 아니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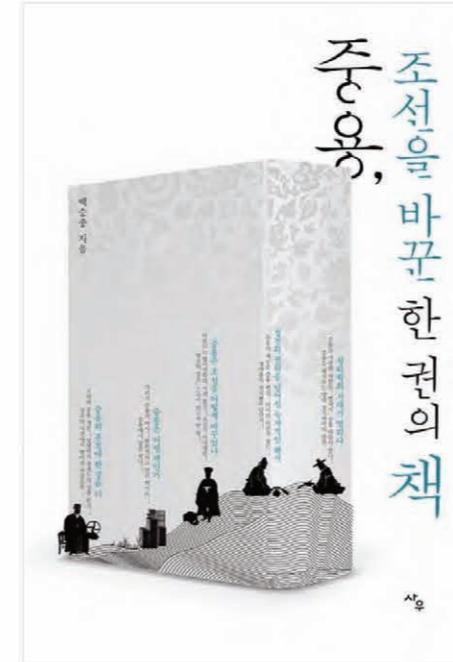
그러므로 군자는 평이한 현실에 거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짓을 감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유사함이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君子素其位而行，不願乎其外。素富貴，行乎富貴，素貧賤，行乎貧賤，素夷狄，行乎夷狄，素患難，行乎患難，君子無入而不自得焉。

在上位，不陵下，在下位，不援上。正己而不求於人，則無怨。上不怨天，下不尤人，故君子居易以俟命，小人行險以徼幸。

子曰：“射有似乎君子，失諸正鵠，反求諸其身。”

백승종 지음



중용, 조선의 바꾼 한 권의 책

“최고의 수양 서적”, 『중용』 이 한 권의 책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나

2,400여 년 전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용』이라는 책은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로 만든 주인공이다. 아직까지도 이 책을 “최고의 수양 서적”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중용』은 조선의 왕과 선비들이 가장 사랑한 책이자 조선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조선의 왕과 선비들은 『중용』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시대가 당면한 과제를 『중용』을 통해 해석하고자 노력했다.